

3-1-2000

## 편집위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드리는 글

Jae Il Kim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amj.kma.re.kr/journal>



Part of the [Marketing Commons](#)

### Recommended Citation

Kim, Jae Il (2000) "편집위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드리는 글," *Asia Marketing Journal*: Vol. 2 : Iss. 1 , Article 7.

Available at: <https://doi.org/10.53728/2765-6500.1035>

This Article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Asia Marketing Journal.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Asia Marketing Journal by an authorized editor of Asia Marketing Journal.

## 편집위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드리는 글

한국 마케팅 저널이 창간되어 벌써 2권 1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창간을 위한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권 2호의 작업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호를 발간한 후 임기를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널을 보다 발전시키실 수 있는 다른 분이 인수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임 종원 학회장님 당시 이 학술지를 구상할 즈음에는 마케팅 분야에서 2종의 학술지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마케팅학회에서도 *Journal of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를 비롯하여 총 8종의 학회지 및 간행물들이 발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회에서도 기존의 마케팅연구와는 차별화된 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 입어서 이제 어느 정도 논문의 투고 편수라던가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초기의 우려는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학회지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논문을 투고해주신 회원님들과 바쁜 시간을 쪼개어 기꺼이 심사를 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편집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 도움을 주신 편집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학회 재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회지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게 배려해주신 박 동성, 안 길상 회장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간 한국 마케팅 저널은 아래와 같은 방침 하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첫째, 기존의 학회지인 마케팅연구가 주로 정교한 방법론과 실증 조사를 실시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 학술지는 이에 제한 받지 않고 학회 회원들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보급하는 새로운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개념적 연구로부터 마케팅 실무에 시사점이 많은 논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발표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 이런 대원칙 하에 투고 논문은 국문 논문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접수하여 심사 및 게재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물론 학회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를 때까지 다소간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논문도 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심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주로 e-mail을 통하여 심사자와 투고자 간의 문서류 의사소통 (paperless communication)을 하였습니다. 또, 학회지는 기본적으로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 독자들에게 의해 접속되고 필요 시 개인적으로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일정 부수를 인쇄하여 저자가 업적 평가의 자료로서도 활용하는 동시에, 마케팅학회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하는 회원님들께 잉여 부수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쇄, 우송 및 편집작업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이는 기존 학회지의 절반에 불과한 예산으로 연 4회의 발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원로 교수님들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도의 심사제도를 거치지 않고 초청 논문의 형식으로 게재하였으며 현재까지 2편의 논문이 초청 논문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마케팅 분야의 중심적 주제를 초청 형식으로 의뢰하여 별도의 심사와 편집 과정을 거쳐 게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지 발전을 위해 저의 재임 기간에 구상은 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회지의 구성에 있어서 서평 (book review) 등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 주제에 대하여는 특집호의 발간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 마케팅 저널에 발간된 논문들 중에서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좋은 논문의 투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수적일 것입니다.

셋째, 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필수적으로 밟아야 할 학술진흥재단의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중요한 작업은 편집위원장을 맡으신 예 종석 교수님의 책임 하에 이루어 질 것이지만 저를 비롯하여 학회 회원님들의 계속적 지원과 동참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끝으로, 한국 마케팅 저널이 마케팅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투고자, 심사자, 편집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편집위원장 김 재일 올림